

중국 재정적자 급증 배경과 전망

I. 재정적자 급증 현황과 배경

□ 1999년 이후 중국 재정적자 급증 추세

- 1998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1% 미만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1999년부터 상승 추세
 - o 2001년 중국 재정 적자 규모는 2,598억 위안(313억 달러)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.7%에 육박
 - o 최근 IMF는 이러한 중국의 재정적자 증대가 향후 중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(IMF, World Economic Report, 2002.4.18)

□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발행 급증

- 1990년 375억 위안(45억 달러)에 불과하던 국채 발행액이 2001년에는 13배 이상 증가한 5,005억 위안(603억 달러)에 육박
 - o 2001년 국채 원리금 상환액은 2,006억 위안(242억 달러)
 - 통상 국채의 만기구조가 3~5년인바 이러한 만기도래 국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등 국채 발행의 악순환 국면이 지속되면서 정부부채 증가 원인으로 작용
 - o 2001년 국채의존도(국채발행액/명목GDP×100)는 25.3%로 NIEs, 아세안 등에 비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나 1990년 11.3%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높은 증가세 지속

중국의 재정관련 주요 지표 추이

(단위 : 억 위안, %)

상표군	1990	1995	1996	1997	1998	1999	2000	2001
재정수입(A)	2,937	6,242	7,408	8,651	9,876	11,444	13,395	14,760
재정지출(B)	3,084	6,824	7,938	9,234	10,798	13,188	15,887	17,358
재정수지(C=A-B)	-146	-582	-530	-582	-922	-1,744	-2,491	-2,598
재정수지/GDP	-0.8	-1.0	-0.8	-0.8	-1.2	-2.1	-2.8	-2.7
중앙재정 채무의존도 ¹⁾	21.1	53.8	56.1	55.6	60.4	61.3	58.9	69.0
국채발행액	375	1,550	1,967	2,477	3,311	3,375	4,180	5,005
국채원리금상환	190	883	1,355	1,918	2,353	1,911	1,580	2,006
국채의존도 ²⁾	11.3	19.9	21.0	22.3	25.1	24.5	23.8	25.3

주1) 중앙재정 채무의존도 = 국채발행액/(중앙 재정지출 + 국채원리금상환)*100

주2) 국채의존도 = 국채발행액/GDP*100

자료 : 중국통계년감 등

□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과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국유기업 지원 증대 등이 재정적자 확대 원인

- 첫째, 경기 부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 추진으로 재정지출 증대
 - o 1998년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공공투자 증대 등 확대 재정정책 지속 추진
 - 2001년 고정자산 투자액은 3조 6,898억 위안(4,446억 달러)로 전년대비 12.1% 증가
 - 재정 지출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공투자 증가율은 20%로 민간투자 증가율(10%)을 크게 상회
 - 소비 진작을 위해 국유기업 근로자 및 공무원 급여 인상(1998년 이후 3차례), 사회보장 제도 확충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 요인 발생
 - o 정부는 확대 재정정책이 GDP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약 1.5~2.0%포인트로 분석

- 둘째, 주요 세원인 국유기업의 경영난과 파산 등으로 재정 수입 증가폭 둔화
 - o 1990년 국유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604억 위안으로 총 재정수입의 20.6%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827억 위안으로 총 재정수입의 6.1%로 크게 감소
 - 2002년 1/4분기 국유기업 수익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30.1% 감소한 337억 위안으로 집계됨으로써 금년 국유기업으로부터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

II. 향후 전망과 과제

□ 당분간 재정적자 확대 지속 전망

- 중국정부는 7% 이상의 견실한 성장세 유지를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써 확대 재정정책을 견지할 전망이어서 당분간 재정적자 확대 추세는 불가피할 전망
 - o 2002년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더욱 늘어난 3,098억 위안(372억 달러)으로 GDP의 3.0%에 달할 것으로 전망
 - 2002년 정부지출과 고정자산 투자는 각각 전년대비 13.5%, 7.0% 증가 예상
 - 이외에도 공무원 처우 개선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, 서부대개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, 황사 방지 등 환경 분야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날 여지는 큰 것으로 판단

□ 재정적자 확대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가능

- 국채발행 규모가 늘어나면서 정부부채 역시 급증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- 정부부채 급증 → 정부지출 감소 노력 → 공공투자 위축 → 경제성장 애로
- 따라서 정부는 세원 확보 및 국가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필요
- 세제 개편을 통한 정부 재정수입 증대, 재고용 촉진 등을 통한 실업비용 축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, 금융기관의 신규 부실채권 발생 억제 등의 노력이 필요함.

문의 : 국별조사실 부부장 김주영 ☎ 3779-6647, jykim@koreaexim.go.kr
: 차 장 전선준 ☎ 3779-6650, jsun@koreaexim.go.kr
: 대 리 이지연 ☎ 3779-6655, jeyi@koreaexim.go.kr